

위대한 백두령장의 숭고한 미래관으로 비약하는 선군의 내 조국

후손만대의 번영을 안아오는 빛나는 령도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조신로동당 대표자회를 마중해가는 천만민민의 가슴마다에는 불멸의 빛나는 내 조국은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고 불멸의 화원마냥 꽃피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찬양이 그리움에 넘쳐나고 있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내 조국은 우리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이 담보되어있는 은혜로운 사회주의락원이다.

주체철, 주체선유, 주체비료... 인민의 만복이 쏠아지는 경이적인 사면들이 편이 어터지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김일성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새겨안고 찬란한 대일로를 향하여 더욱 파란만장인 길을 다그치도록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 언제나 선군조선의 위대한 미래를 꽃피워가시는 천출명장 김일성군님을 따르는 길에 위대한 강성대국승리가 있다.

천만민민의 심장속에서 뿌리내린 이 드넓은 심원은 오로지 이 땅 위에 후손만대의 번영을 안아오시려고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한 령도를 순결한 량심으로 받들어오는 나날에 억척같이 다져진 자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는 끝없이 번영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그 품속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찬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리며 그 어떤 단련도 달게 여기며 일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 한없이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위대한 인민족만대를 위한 성공적인 정치를 할수 있다.

일찍부터 어머니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조신을 누리며 떨칠 줄 모르는 맹세의 외 하날아래 주체로 존엄하고 선군으로 위력하며 인민이 대대손은 부락을 누릴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실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령마루에 돌출시키어 이끌어오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동지! 모든 사색과 정열을 혁명의 최후 승리와 잇닿은 사업에 기울이시며 불멸의 천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걸출한 선군명령의 불멸할 로고속에 김일성민족의 찬찬한 앞날이 펼쳐지고 있다.

하기에 어머니수령님께서 생전 애를 다 쏟아 주신것이 주체혁명위업의 밝은 길에 대하여 락관하고 있다고,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탁월하기 때문에 조선의 미래에 대하여 마음을 놓았다고 하시면서 김정일동지가 령도하는 조신은 오늘도 무적의 강국이지만 깨달고 영원히 필승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상에 존엄을 떨칠것이라고 그리고 만족하시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우리의 가슴에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인생관이 뜨겁게 빛발처 온다.

―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오늘에 살라!

자기를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라는 고귀한 뜻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인생관이며 여기에 세월을 주름잡아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위대성이 있다.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두번째로 맞이한 해의 1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가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오늘에 살라》. 이것이 나의 인생관이다라고 하시면서 일꾼들이 주체의 인생관,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어 모든 일꾼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국토건설을 한가지

하여도 10년, 50년, 100년,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며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모든 일을 먼 후남에도 손색없이! 진정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적 이상을 세상에 선포하는 정승하는 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집필하신 수 많은 로작들은 시대의 앞길을 등대처럼 밝혀주는 귀중한 재부로 21세기를 빛을 입추지 않는 대보물로 영영한 빛을 뿌리셨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이 땅에 솟아난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들은 어느것이든 다 후세에 길이 전해질 만대대계의 기념비이다.

김정일동지는 창조의 거장입니다. 창조의 거장이 있는 조신은 앞으로 시대의 거물로 부흥할것이며 창조의 보보가 되어 세계를 진감할것입니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머니수령님의 이 말씀을 되새겨 보자면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 능숙한 조직력으로 우리 인민을 세기적변혁의 길로 힘있게 이끄시어 내 나라를 누누리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애정으로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창조와 건설의 영예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어머니수령님의 고결한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서 안아오신 평양번영기!

김일성군장, 개신관, 주체사상관, 인민대학습당과 만수대학습관, 참관원, 방상관, 정무원, 서해각관, 평양산원, 문수거리, 5월 1일경쟁 등 위대한 항도의 손길아래 1970년과 1980년대에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은 100년, 1000년이 가도 손색없는 위대한 창조물들이었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건설된 광복거리만 해도 그렇다.

평양시를 혁명의 수도로 더 훌륭하게 꾸리시려는 어머니수령님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중요한 국제행사도 손색없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광복거리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입니다.

주체조신을 세상에 제일 훌륭한 나라로 빛내이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에 현대적인 창조물들이 수놓처럼 일떠서고 수도의 면모는 일신되였다.

― 언제인가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한 외국인의 대령은 평양의 거리들을 돌아보면서 몹시 흥분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대대령은 격동된 심정을 감지 못하며 확실히 조선의 김정일동지는 창조의 거장이라고 높이 칭송하시었다.

이것은 무엇을 하나 구상하시어도 천만민민을 빛내이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미래관에 대한 세계의 경탄이다.

새 세계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정려된 나라의 토지들과 현대적으로 꾸러진 외관한 인민생활상장기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기들을 비롯한 창조물들은 또 얼마나 앞날에 대한 열렬한 환희를 불러일으켜주는것인가.

후대에게 더 훌륭한것, 완전무결한것을 물려주시려는 절세위인의 고귀한 뜻은 최첨단을 돌파한 CNC기계를 현대적인 기계제작기계를 등 여러 과학기술분야에도 력적으로 이여였다.

박린명이 전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처음 대형산소분리기제작에서 제 일 어렵고 힘든 문제로 나왔던것은 새로운 열교환기를 만드는것이였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새형의 열교환기를 만드는 나라는 불과 몇개 나라밖에 안되고 그 제작공정은 매우 엄격한 비밀에 붙여져있었다. 그대대령은 새형의 열교환기 기판은 우리 손으로 만들수 없다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사다쓰라고 했으리나 우리는 자재와 로력이 더 들기는 하지만 파악이

있는 판식열교환기를 만들자고 하였다.

이런 때에 박린동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새형의 열교환기를 만드는 데 크나큰 심혈을 바치신분은 우리 장군님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새형의 열교환기에 대한 기술자료들을 모시고 우리 나라에서 만드는 대형산소분리기에 열교환기는 판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굳게 단정히 기술요소의 대를 열여제끼는 묘술을 안겨주시었다.

몸소 필요한 기술도면과 기술자들도 내려보내주시고 열교환기의 제작공정도면이 없다는것을 헤아리시는 손수 그 제품검본까지 구하여 보내주시였으며 유능한 과학자들이 헌신에 나가 적극 도와주도록 초까지 위촉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 언제나 끝없이 부강번영할 조국의 편지를 그려보시며 모든 일을 전가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마침내 우리 식의 현대적인 열교환기가 태여날수 있었다.

조르는 세월과 더불어 우리 후대들이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더욱 면밀하게 하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울루히 꾸러진 혁명전적지, 혁명적지들은 민족대계의 번영을 담보하는 재보정의 재보이다.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

하나를 창조해도 우리 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세상에 없는것도 용감하게!

위대한 향! 김일성조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이것이 창조의 거장이신 위대한 선군대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뜻을 되새기고자 한다.

정령 국의 미래를 누굽다 열렬히 사랑하는 자는 최세의 선군명령 김정일장군님을 혁명의 최고수로 높이 모시고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본사기자 계 성 남

고결한 총정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왕제산혁명사적지가 건설된 때였다.

어느날 건설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왕제산혁명사적지건설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대기념비가 되게 정중히 잘 모시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탑과 동상간의 비례적조화가 맞는가, 동상과 조상간의 위치상관계는 정확한가, 동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각물의 구조는 잘되었는가 등에 대해 특이한 관심을

한순간에 찾아내신 묘책

창평거리 2개간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이었다.

설계부문의 한 일꾼을 부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일꾼에게 설계도면을 다시 보라고 하시었다. 일꾼은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어 설계도면을 그이앞에 펼쳐놓았다.

한동안 설계도면을 들여다 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두 건물로 된 호텔을 편직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고 그 층수를 더 높여 거리형성에서 곱목을 주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일꾼은 놀라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두 건물이 다 확장되어 층수도 거기나 올라 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두 건물을 편직하여 하나로 만들수 있겠는가고 의문스러워할수 있는대 격정할것이 없었다. 지금 하고있는 벽체쌓기를 중지하지 말고 더 올라가 수심층높이에서 허공다리복도로 편직시켜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라, 그리고 옥상도 편직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고 그 층수를 더 높여 거리형성에서 곱목을 주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일꾼은 놀라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두 건물이 다 확장되어 층수도 거기나 올라 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두 건물을 편직하여 하나로 만들수 있겠는가고 의문스러워할수 있는대 격정할것이 없었다. 지금 하고있는 벽체쌓기를 중지하지 말고 더 올라가 수심층높이에서 허공다리복도로 편직시켜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라, 그리고 옥상도 편직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고 그 층수를 더 높여 거리형성에서 곱목을 주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일꾼은 놀라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두 건물이 다 확장되어 층수도 거기나 올라 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두 건물을 편직하여 하나로 만들수 있겠는가고 의문스러워할수 있는대 격정할것이 없었다. 지금 하고있는 벽체쌓기를 중지하지 말고 더 올라가 수심층높이에서 허공다리복도로 편직시켜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라, 그리고 옥상도 편직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고 그 층수를 더 높여 거리형성에서 곱목을 주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일꾼은 놀라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본사기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몽골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울란바타르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쥬각하

나는 몽골인민혁명력사 89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내면서 귀국의 끊임없는 발전과 번영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오랜 력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7월 10일 평양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발전건설을 찾으시어 우리 일꾼들의 애국의 열정이 높이는 구조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장하자!》를 보시고 온 나라가 이런 정신으로 나갈데 대하여 하신 절절한 가르치심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력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천만민민의 가슴가슴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장하자! 부강번영할 내 조국의 후손만대를 위하여 불멸의 강성대국건설사수를 수놓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숭고한 뜻이 우리 병사들의 심장에서 이룬 불같은 구조를 날게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선군의 기치아래 창조와 변혁으로 꿰고있는 오늘 온 나라 인민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완강한 의지로 민족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재부를 끊임없이 늘여가고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구상하고 실천하시어도 완전무결하게 해놓으시는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천년의 가치와 만년의 의를 가지는 세기적이며 력사적인 기념비이다.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우고 국토건설을 한가지 하여도 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도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 기록 과학 영화 촬영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과학회합연구소(당시)를 현지도하신 40돐 기념 보고회가 10일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관계부서 일꾼들과 촬영소일꾼들, 창작가,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총장 김도자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과학영화촬영소를 현지도하신 40돐을 축하하여 주체59(1970)년 7월 11일은 과학영화촬영소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강령적지침이 마련된 력사적인 날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촬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과학영화를 잘 만들어내서 대중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였으며 구체적인 과학영화사상과 리론을 밝혀주시어 우리의 과학영화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촬영현상과 연출, 편집에서 나는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을뿐 아니라 록을 및 영상실비, 촬영기재, 운수수단들의 실패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 말하였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경제 선형부문과 경공업, 농업에 비롯한 중요부문들에서 효과적으로 도입되고있는 과학기술자료들, 앞선 생산방법들을 소개선전하는 수많은 과학영화가 제작되어 우리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여주고 생산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준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일꾼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같이 빛내이며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과학영화를 명작으로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최첨단기술과 상식을 소구선전하는 과학영화를 더 많이 만들어 대중을 최선과학기술자를 소유한 인재들로 준비시키는 데 이바지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의욕과 커다란 창작성파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대한 회화 진정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놓여 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 위원이 세워졌었다.

회화진정들에는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양형성동지와 강승수, 전하철내각부총리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놓여 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 위원이 세워졌었다.

회화진정들에는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양형성동지와 강승수, 전하철내각부총리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놓여 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 위원이 세워졌었다.

회화진정들에는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양형성동지와 강승수, 전하철내각부총리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놓여 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 위원이 세워졌었다.

혁명렬사 오중훈동지의 반신상에 대한 진정

평양시 혁명렬사 오중훈동지 생일 100돐을 즈음하여 10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있는 그의 반신상에 회화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회화가 반신상에 놓여있었다.

김영춘동지, 오구별동지와 리태관, 한광복내각부총리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성원일꾼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유가족들, 평양시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회화진정에 참가하였다.

회화진정들이 올리는 가운데 오중훈동지의 반신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인민무력부, 인민유공위원회, 체육성, 평양시당위원회, 평양시 북부공공청과 우리 당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본사기자 김 준 희

무적 필승의 기상 군가에 내려진다

우리 나라 보건제도가 세상에서 제일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쥐고 사회주의 조국을 철벽으로 지키려는 우리 인민군인들의 영웅적 기상과 드높은 전투적 사기, 끓어 넘치는 애국의 열정은 선군시대의 새 군가들을 끊임없이 낳고있다.

최근에 새로 나온 가요 《용감하라》와 《단숨에》는 위대한 선군명장의 슬하에서 무적 필승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는 인민군대의 영웅적 기상을 훌륭히 반영한 것으로 하여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려 오고있다. 이 노래들은 오늘 멸적의 기상 내재하는 혼연장군대대에서,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는 강성대국건설장마다에서 승리의 개가마냥 힘차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군인들의 사상 정신상태는 대단히 좋습니다.》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군대마다 군가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이 부르는 군가는 단순히 군인들의 사기를 돋우어주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혁명군가는 천만군대의 심장마다에 승고한 사명을 심어주고 그들을 수령결사투위의 투사로 키워주는 위대한 무기이다.

조선인민의 진정한 혁명무력이 창건된 그때로부터 우리의 혁명군가는 빛나는 발전의 길을 새겨오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조선인민혁명군》을 비롯하여 《유격대행진곡》과 같은 항일무장투쟁시대의 혁명가요들로부터 개척된 우리 혁명군가는 《조국보위의 노래》, 《조선인민군가》, 《우리의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 《총성의 대답소리》(알았습니까), 《수령님 위하여 복부합》,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등 혁명의 각이한 년대기들마다에서 투쟁의 진군가로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당과 수령에 대한 총성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성, 대중적 영웅주의의 감정—이것은 우리 혁명군가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투철하고도 고유한 사상에술적특질인 동시에 날로 성장하는 인민군인들의 높은 정신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총창은 군인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심장의 언어로 새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 혁명군가의 사명이고 본분이다.

주체혁명군가의 사상에술적특질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가요 《용감하라》, 《단숨에》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높은 정신력을 지니고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가고있는 선군시대 인민군인들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다.

노래들은 박력에 넘치는 제목에서부터 우리 혁명군대의 역센 기상, 인민군인들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노래들은 위대한 평양의 손길아래 무적강군의 용사로 준비해가는 인민군인들의 보람찬 군무생활의 희곡을 통하여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를 무적의 총대로 담보해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위대한 정신력과 배짱의 기상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용감하라》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언제나 무비의 헌신성을 다 바쳐 투쟁하는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적기상을 격조높이 노래한 선군시대의 군가이다.

용감한 병사의 군화아래선 산악도 정검될 된다
용감하라 병사여 조국을 위하여
용감하라 병사여 조국을 위하여
...

우리 인민군인들이 발휘하는 용감성은 그 어떤 성적적기질의 표현이전에 자신들을 키워주고 가장 고귀한 믿음을 부여해주는 위대한 선군명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에서 분출되는 승고한 정신력의 발현이다.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평양의 담력과 배짱은 우리 병사들에게 무적의 용감과 영웅성을 키워주고있다.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이 한전호에서 승결과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벅찬 현실속에서 우리 인민군인들은 일당백의 필열 나는 용사로 자라나고있으며 그들의 용맹과 기상은 이렇듯 훌륭한 군가들을 낳고있는 것이다.

용감하라 병사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 목적을 세우면 어떤 영웅들의 값이 어려운 것이든 이 구절을 우리 인민군인들은 선군시대의 부름, 조국의 목소리로 경건하게 받아안고있다.

위훈으로 부르는 시대와 조국의 성스러운 부름앞에 오늘 우리의 병사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단숨에》의 석석한 군가속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노래에도 잊음이 우리 인민군대는 《단숨에》라는 말을 사랑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란 조국보위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로 믿을직하게 해내야만 우리 군인들의 철칙의 신념과 의지가 이 노래에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

백두령장을 뚫는 병사들 그 기상을
나래로 뚫은
이제 남은 최후결전도 우리 또한
단숨에 하리

이것이 오늘 조국방선을 지켜선 선군시대 일당백용사들의 심장의 대답소리이다.

이처럼 가요 《용감하라》, 《단숨에》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를 무적의 총대로 담보해가는 우리의 인민군대의 위대한 정신력과 불패의 기상을 격조높이 노래함으로써 우리 혁명무력강화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는 군가로서의 품격을 당당히 갖추고 큰 감화력을 발휘하고있다.

노래들은 또한 음악형상에서도 인민군인들의 배짱과 성격에 꼭 들어맞는 특색있는 선율을 창조하고있다. 행진가요의 직격한 양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활달하고 경쾌있는 독특한 정서들을 제시있게 살려내고있는 참신한 선율형상들은 선군시대 혁명군대의 성격에 맞는 음악창조에서 또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높이 그 어떤 대적도 쓸어버리고 승리를 안아오고야말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전투의 승배는 현대적인 무장장비나 전투기술기계가 아니라 총창은 군인들의 정신력에 달려있다. 승고한 사상감정으로만 발휘되는 높은 정신력만이 바로 군대의 전투력, 전투승리의 기본 담보인 것이다.

만일 원수들이 신성한 내 조국의 한치의 땅이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위대한 백두령장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의 영웅적인민군대는 혁명의 군가들을 우렁차게 부르며 다시고르거나 무적의 군력으로 침략자들을 용감하게, 단숨에 짓밟아버리고야말 것이다.

우 정 혁

어릴 가나 7, 8월해양체육월간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요즘을 평양진흥중학교 수영장에서 학생들의 수영할 땀이 한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교들에서는 세면이 바다로 뿜어져있고 강아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수영을 장려하여 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할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해염을 맡지 않고 바다와 강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영교육을 잘하고있는 학교에는 자랑이 많다. 몇해 전부터 구역적인 수영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연수 쟁취하여

에 치료력량이 뛰어났으며 여러차례 머리와 다리에 대한 피부부식수술이 진행되었다.

분과 초를 다루는 환자의 소생을 위해 의료인들은 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수술후 외상정형외과학과과의 교원, 의사들은 환자의 회복치료를 불같은 열정을 바쳤고 그의 몸을 추켜세우는데도 뜨거운 정성을 기울여왔다.

담당사, 간호원들과 고택은 사람들이 환자의 건강회복에 좋은 여러가지 영양식품을 가져다주었다.

6개월이간 긴장한 치료전투 끝에 원상회복은 커녕 살려낼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환자는 건강을 회복하고 혁명초소에 다시 설수 있게 되었다.

이름이 아니다.

얼마전 김만유병원 심장외과로는 심장병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입원하였다. 14년 전 수술을 받고 두번다시 태어났던 장영군의 리혼화동무는 이번에 세계적으로 곤란하다고

하는 위험한 수술을 받고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행운을 받아안았다. 석달가까이 일원한 기간 그는 과정 조광호동무를 비롯한 심장외과 의사, 간호원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자신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할수 있었다.

지난 2월초 심장의 박동이 거나 멎었던 평양시 대동중구역 룡라1동에서 사는 강령로병이며 영애군인 김계순동무에 대한 수술전투때에 다 아픈다는 소생행이 수입이 발휘되었다.

이 병원 물리대사와 과장 리동수, 담당사 강계선, 김정림동무를 비롯한 의료진단 단과와 밤이 따르없는 치료전투를 벌려 두달만에 환자를 완쾌시킬수 있었다.

진정 우리 나라처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 국가책임지고 돌봐주며 병이 나도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는 세상에서 없다.

진 철

《김일성상》계판작품 경회극 《산울림》 공연이 신의주에서 6월 30일부터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공연이 진행되고있는 평안북도예술극장은 매일과 같이 공연을 보러 온 관람자들이 넘쳐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투쟁은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에게 안일과 해이, 순간의 답답과 침체도 허용하지 않고 언제나 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긴장하게 투쟁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할것을 요구합니다.》

경회극 《산울림》의 출연자들은 천리마시대의 선구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승고한 리상, 불굴의 투쟁모습을 명랑한 웃음과 재미있는 해학으로 잘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들을 끌어들인 감동시키고있다. 특히 배우들이 진실하면서도 생동한 연기형상으로 관람자들의 심장을 울리고있다.

경회극 《산울림》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강성대국건설에 힘있게

고추수확하는 훌륭한 교본인 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당위원회는 한 책임일군은 지금 공연을 본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대의 명차 경회극 《산울림》의 지방순회공연을 마련해준 선군시대 장군님의 크나큰 은전적 감사의 정을 감지 못해하면서 천리마시대의 《산울림》이 선군시대의 《산울림》으로 선포되게 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고 하였다.

신의주시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비롯한 도안의 시, 군의 당책임일군들은 경회극 《산울림》은 불후의 심오한 생활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주는 시대의 명작이라고 하면서 아예 단위의 당일군들이 《산울림》의 리상 위원장처럼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하여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통천군 신암협동농장,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 관리위원장들은 농업생산에 위해 헌신분

를 한 천리마시대의 농업근로자들처럼 나라의 쌀들을 책임진 주인공답게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농업생산에 결정적으 로 늘어난다는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겠다고 하였다.

도안의 청년동맹원들은 자기 사하는 고장을 제법으로 꾸러 지상락원으로 전편시킨 주인공 황석철처럼 높은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자기 고향, 자기 마을을 선군시대의 선경으로 꾸리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천출의 기백과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겠다고 하였다.

지금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시대의 선경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승고한 리상, 불굴의 정신력을 따라배워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경회극 《산울림》 공연은 혁명적대고조 힘차게 내달리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기적과 위훈장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면서 온 평방명을 들끓게 하고있다.

특파기자 김기두

어릴 가나 7, 8월해양체육월간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요즘을 평양진흥중학교 수영장에서 학생들의 수영할 땀이 한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교들에서는 세면이 바다로 뿜어져있고 강아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수영을 장려하여 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할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해염을 맡지 않고 바다와 강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영교육을 잘하고있는 학교에는 자랑이 많다. 몇해 전부터 구역적인 수영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연수 쟁취하여

이러한 실례를 의면하고 일률적인 교육방법에 매달려서는 학생들에게 수많은 수로 자레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교장 리승조, 부교장 리경희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교원들 모두가 수영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체육교원, 담임교원들이 지혜와 열정을 합쳐 매 학습학생들에 대한 수영교육을 원리적으로 진행해나가기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체육교원들이 학습물에서 제일 뛰어난 학생들을 맡아 가지고 수영의 기초원리를 알았기에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한편 담임교원들이 늘 몰속에 함께 들어가 모든 해염 기초조작들을 매 학생들이 더욱 공히 하도록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었다. 학생들 무서워하지 않는 담을 무고 열매든지 수영을 배울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다들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교원들과 수영을 잘하는 학생들의 수영조작들에 대한 보여주기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한것은 수영교육의 성과적보장에 적극 이바지했다.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수영초기기술수준은 올라가게 발전해갔다.

학교적인 교원수영경기에서 언제나 앞서리를 차지하는 안숙실교원이 담당한 3학년

1학년때에는 몰속에 들어가있는것조차 두려워하던 아가는 포항하여 학교의 4학년녀학생들이 구역을 대표로 하여 지난해의 대동강도경기에서 나가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돌아와 선생님들에게 말하하였다 한다.

—수영장에서부터 대동강에서 해염치기 더 쉬웠다. 힘든 줄도 모르고 강을 도했다. 이제는 깊은 강도 무섭지 않다.

이처럼 녀학생들까지도 깊은 강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과 높은 수영기술을 다져가고 있는것이 학교의 실례이다.

그러니 어찌 교육자들의 보람이 커지 않았는가.

그렇스록 자기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몰에의 해양체육월간에 학생들에 대한 수영교육에 더욱 진지하게 달라붙는 이곳 일군들과 교원들은

오전, 오후로 지밀하게 맞물려 리용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학교별수영활동으로 하여 학교수영장은 교원들과 학생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날마다 뜨겁게 달아오르곤 한다.

이렇게 평범한 중학교의 수영장에서 조국의 미래가, 해일의 용감함이 씩씩하게 자라고있는 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철룡

경희극 《산울림》 신의주에서 공연

노동과 국방을 위하여 해양체육월간사업에 힘있게

《경희극 《산울림》계판작품 경회극 《산울림》 공연이 신의주에서 6월 30일부터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공연이 진행되고있는 평안북도예술극장은 매일과 같이 공연을 보러 온 관람자들이 넘쳐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투쟁은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에게 안일과 해이, 순간의 답답과 침체도 허용하지 않고 언제나 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긴장하게 투쟁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할것을 요구합니다.》

경회극 《산울림》의 출연자들은 천리마시대의 선구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승고한 리상, 불굴의 투쟁모습을 명랑한 웃음과 재미있는 해학으로 잘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들을 끌어들인 감동시키고있다. 특히 배우들이 진실하면서도 생동한 연기형상으로 관람자들의 심장을 울리고있다.

경회극 《산울림》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강성대국건설에 힘있게

고추수확하는 훌륭한 교본인 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당위원회는 한 책임일군은 지금 공연을 본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대의 명차 경회극 《산울림》의 지방순회공연을 마련해준 선군시대 장군님의 크나큰 은전적 감사의 정을 감지 못해하면서 천리마시대의 《산울림》이 선군시대의 《산울림》으로 선포되게 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고 하였다.

신의주시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비롯한 도안의 시, 군의 당책임일군들은 경회극 《산울림》은 불후의 심오한 생활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주는 시대의 명작이라고 하면서 아예 단위의 당일군들이 《산울림》의 리상 위원장처럼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하여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통천군 신암협동농장,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 관리위원장들은 농업생산에 위해 헌신분

어릴 가나 7, 8월해양체육월간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요즘을 평양진흥중학교 수영장에서 학생들의 수영할 땀이 한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교들에서는 세면이 바다로 뿜어져있고 강아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수영을 장려하여 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할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해염을 맡지 않고 바다와 강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영교육을 잘하고있는 학교에는 자랑이 많다. 몇해 전부터 구역적인 수영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연수 쟁취하여

강의한 의지와 용감성을 키워주어

영예의 붉은기 평양진흥중학교 교원들

이러한 실례를 의면하고 일률적인 교육방법에 매달려서는 학생들에게 수많은 수로 자레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교장 리승조, 부교장 리경희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교원들 모두가 수영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체육교원, 담임교원들이 지혜와 열정을 합쳐 매 학습학생들에 대한 수영교육을 원리적으로 진행해나가기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체육교원들이 학습물에서 제일 뛰어난 학생들을 맡아 가지고 수영의 기초원리를 알았기에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한편 담임교원들이 늘 몰속에 함께 들어가 모든 해염 기초조작들을 매 학생들이 더욱 공히 하도록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었다. 학생들 무서워하지 않는 담을 무고 열매든지 수영을 배울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다들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교원들과 수영을 잘하는 학생들의 수영조작들에 대한 보여주기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한것은 수영교육의 성과적보장에 적극 이바지했다.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수영초기기술수준은 올라가게 발전해갔다.

학교적인 교원수영경기에서 언제나 앞서리를 차지하는 안숙실교원이 담당한 3학년

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실례를 의면하고 일률적인 교육방법에 매달려서는 학생들에게 수많은 수로 자레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교장 리승조, 부교장 리경희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교원들 모두가 수영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체육교원, 담임교원들이 지혜와 열정을 합쳐 매 학습학생들에 대한 수영교육을 원리적으로 진행해나가기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체육교원들이 학습물에서 제일 뛰어난 학생들을 맡아 가지고 수영의 기초원리를 알았기에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한편 담임교원들이 늘 몰속에 함께 들어가 모든 해염 기초조작들을 매 학생들이 더욱 공히 하도록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었다. 학생들 무서워하지 않는 담을 무고 열매든지 수영을 배울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다들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교원들과 수영을 잘하는 학생들의 수영조작들에 대한 보여주기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한것은 수영교육의 성과적보장에 적극 이바지했다.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수영초기기술수준은 올라가게 발전해갔다.

학교적인 교원수영경기에서 언제나 앞서리를 차지하는 안숙실교원이 담당한 3학년

1학년때에는 몰속에 들어가있는것조차 두려워하던 아가는 포항하여 학교의 4학년녀학생들이 구역을 대표로 하여 지난해의 대동강도경기에서 나가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돌아와 선생님들에게 말하하였다 한다.

—수영장에서부터 대동강에서 해염치기 더 쉬웠다. 힘든 줄도 모르고 강을 도했다. 이제는 깊은 강도 무섭지 않다.

이처럼 녀학생들까지도 깊은 강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과 높은 수영기술을 다져가고 있는것이 학교의 실례이다.

그러니 어찌 교육자들의 보람이 커지 않았는가.

그렇스록 자기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몰에의 해양체육월간에 학생들에 대한 수영교육에 더욱 진지하게 달라붙는 이곳 일군들과 교원들은

오전, 오후로 지밀하게 맞물려 리용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학교별수영활동으로 하여 학교수영장은 교원들과 학생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날마다 뜨겁게 달아오르곤 한다.

이렇게 평범한 중학교의 수영장에서 조국의 미래가, 해일의 용감함이 씩씩하게 자라고있는 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철룡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9돛에 즈음하여 중국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평양 7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9돛에 즈음하여 류청제 주중 특명전권대사 7월 10일 대사에서 연회를 마 련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인 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성동지와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보건의장, 김성남, 박재경, 김성기, 리명선, 량학순, 전영선 등 판계부동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류청제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49년전 주은래총리동지와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중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신것은 두 나라 관계력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고 말하

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명도 밑에 중국인민은 과학적발전판에 기초한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조중친선 관계를 이어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된 릋장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조중친선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하하며, 존경하는 호모도 동지의 건강을 축하하며,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의 꽃이 피는 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이에 앞서 9일 청진주제 중화인민공화국 총서장이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9돛에 즈음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인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로므니아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김선경동지가 임명되었다.

7, 8월해양체육월간이 시작되었다. 온 나라 방방곡곡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우리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해수욕장, 수영관, 수영장 등을 리용하여 더욱더운 해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사업은 결국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건강과 민족의 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됩니다.》

세면이 바다로 뿜어져있고 강아천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누구든지 수영을 할수 있는 자연조건과 조국보위에 동참해 이바지할수 없다. 강과 바다를 정복하자면 강과 바다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하면 누구나 다 수영을 배워야 한다. 더우기 미래와 리명박적 패망의 무분별한 반공파괴세력모험행동으로 하여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오늘날 모든 사회생활들이 정의의 조국보위정권에 튼튼히 준비되자면 우리 나라의 자연리조건에 맞게 누구나가 수영을 할수 있어야 한다.

해양체육월간사업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떠밀고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해양체육월간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바다와 강의 정복자로, 건강한 체력과 굳센 의지의 소유자로

해양체육월간사업에 적극 참가하자

각급 교육기관에서는 교원들부터가 수영을 습득하며 기초하여 자녀나 학생들이 소학교를 거쳐 중학교를 졸업할 때 넓은 강도 단숨에 도하하는 높은 수영능력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영을 배우는데서도 사상적각오가 중요하다. 마음먹고 달려붙어 기초조작부터 하나하나 익혀나가면 얼마든지 수영을 배울수 있다.

각지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실시하게 될때 누구나 수영을 비롯한 해양체육활동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적극 참가하도록 이끌어주며 일군들이 수영활동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고 근로자들의 해양체육활동조직보장사업을 적극 따라서 세워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해양국의 인민, 해양국의 청소년들처럼 7, 8월해양체육월간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사상교양사업을 실시하게 될때 누구나 수영을 비롯한 해양체육활동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적극 참가하도록 이끌어주며 일군들이 수영활동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고 근로자들의 해양체육활동조직보장사업을 적극 따라서 세워야 한다.

바다의 정복자들

통천군 자산중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생들이 수영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천군 자산중학교는 자랑이 많은 학교이다.

조국보위초소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공화국영웅들을 비롯하여 여러명의 영웅들을 배출하였으며 학생들을 바다의 정복자로 키우기 위한 수영교육에 힘을 넣어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진행된 중학교 학생들의 수영경기들에서 언제나 앞서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적인 수영경기에서 또다시 우승하여 학교의 영예를 떨친것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경기들에서 쟁취한 메달은 수천개에 달한다.

주제 48 (1959)년 6월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이 학교 학생들을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들에게 바다의 정복자로 자라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의 가르치심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사는 학교의 일군들과 교원들은 수영교육을 실시하게 된행하여 학생들이 튼튼한 체력과 산지식을 겸비한 미래의 역군으로 준비시키고있다.

학교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영장을 번듯하게 건설하고 물보장대책도 철저히 세워놓는데 기초하여 학생들이 여러가지 수영방법에 익숙하도록 수영교육을 강화하고있다.

학교에서는 수산실습장을 통한 교육에도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

수산실습장을 잘 꾸러놓은 고수목수업을 방비분있게 진행하여 학생들이 바다에 대한 산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고있다.

진 철 호

로므니아주제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임명

【평양 7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므니아주제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임명되었다.

【평양 7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윤선 오사까조선교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조선교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제일조선교급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이 떠나갔다

【평양 7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윤선 오사까조선교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조선교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